

“투지의 팀 만들 것”

손재홍 IBK 수석코치의 각오



프로배구 삼성화재에서 14년간 레프트로 활약하던 손재홍(35·사진)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여자배구 신생팀 IBK기업은행의 수석 코치로 새로운 배구인생을 시작했다.

손재홍은 삼성화재 시절 석진욱(레프트)과 함께 팀 수비 리시브를 책임지며 팀의 프로리그 5회 우승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팀 내에서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특유의 성실함 덕분에 IBK기업은행이 정철 감독의 눈에 들었고 은퇴 직후 감독과 코치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손재홍은 “20여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막상 코치로 선수들을 가르치려니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낯설기만 했다. 여자팀이어서 특히 더 했던 듯하다”라며 적응이 쉽지 않았음을 털어냈다. 자기 몫만 해내면 됐던 선수생활과는 달리 코치는 팀 전체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시브를 할 때도 리시브 하는 선수 뿐 아니라 전체 포지션을 봐야한다. 또 경기기를 마치고 나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살피고 개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팀이 고전할 때면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여전히 코트에 서면 가슴이 뛰는 손재홍은 선수시절 레프트로서의 경험을 살려 “기업은행 선수들은 기본기와 디펜스가 참 좋고, 끈기와 투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코치로서의 첫 목표”라고 밝혔다. 수원·원성열 기자



대한항공 김학민(가운데)이 17일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추상웅(왼쪽)과 이선규의 더블 블로킹을 상대로 강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부상 투혼을 발휘한 김학민의 활약으로 현대캐피탈을 완파했다. 수원·연합뉴스

학처럼 날아 벌처럼 쏘다

〈김학민〉

김학민 20점…대한항공, 현대에 V
여자부 인삼공사는 3-2로 IBK 꺾어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 2011
대한항공 라이트 김학민(20점)이

이틀 연속 펄펄 날았다.

세터 한선수와와 완벽한 호흡, 묵직한 힘에 실어 상대 코트에 내리 쏘는 스파이크에 스스로 도취돼, 발목 부상의 통증은 잊은 듯했다.

17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1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준결리그에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에 세트스코어 3-0(25-23 25-23 25-15)으로 완승을 거뒀다.

김학민은 1세트에서만 서브에이스 1개를 포함해 9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2세트 13-10 상황에서도 블로킹 득점과 오픈 강타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점수차

를 벌려 상대 추격의 흐름을 끊었다.

사실 김학민의 부상은 완쾌되지 않았다. 경기에는 출전하지만 팀 훈련 때는 점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몸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원맨쇼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던 16일 삼성화재전과는 달리 이날 경기에서는 레프트 박승석(13점)과 장광균(8점), 센터 이영택(8점)이 공격에 힘을 보태며 김학민의 부담을 덜어줬고, 덕분에 김학민의 공격력은 꼭 필요한 순간 더욱 날카롭게 살아났다.

2세트에서 잠시 숨을 고른 김학민은 3세트 초반 4-2 상황에서 서브에이스 2개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상대 기를 꺾었고, 20-12에서는 오픈 강타를 성공시킨데 이어 단독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올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한항공 신영철 감독은 “훈련 때 김학민은 리베로로 잠깐 뛰는 정도였다. 하지만 컵 대회에서는 꼭 필요했고, 하

루 전에야 준비를 시켰다. 김학민 덕에 팀이 빨리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고 오늘 승리로 결승 진출의 7부 능선을 넘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김학민은 “이틀 연속 게임하다보니 오늘은 좀 힘들었다. 발목에 통증이 약간 있지만 팀에서 필요로 한다면 뛰는 것이 맞다. 팀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 기쁠 뿐”이라며 프로선수다운 의연함을 보였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부 인삼공사와 IBK기업은행의 준결리그에서는 이연주(27점)의 활약을 앞세운 인삼공사가 폴세트 점전 끝에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2(25-22 25-18 16-25 18-25 15-13)로 꺾었다. IBK기업은행은 신생 팀의 패기로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수비 리시브 불안을 과제로 남기며 무릎을 꿇었다.

수원·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9회 스포츠산업포럼 2011'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호(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보림위원장, 최석화 프로스포츠단체협의회 기획실장, 권오성 비바스포츠대표, 김충 한양대 교수, 박기철 스포츠투아이(주) 전무, 임병태 2014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 홍보보좌관, 정철의(주)FMG부회장, 김수진 한국체대 교수, 오정석(주)싸카대표, 김충환 중앙대 교수, 이정필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사무총장, 이우식 우정치과 원장, 이관식(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 서동원 바른세상병원 대표원장, 박종철(주)엔케어 대표.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트위터@k1sonecut

“스포츠의학, 스포츠 비즈니스로 발전”

49회 스포츠산업포럼 2011 성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회장 이관식)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 아테네홀에서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산업의 융합’을 주제로 ‘제49회 스포츠산업포럼 2011’(스포츠동아 후원)을 개최했다.

스포츠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은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산업의 융합’을 테마로 주제발표를 했다. 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스포츠의학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스포츠의학은 단순한 의학 비즈니스가 아닌 스포츠 비즈니스로 나아가 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스포츠의학은 의학 쪽에서 바라본 산업이었지만, 미래에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시작으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 원장은 그러면서 “스포츠 의학은 스포츠 전반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의해 관련 종사자들이 더욱 늘게 되면서, 스포츠 활동에 따른 비즈니스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엔케어 박종철 대표가 ‘U-헬스케어와 스포츠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이어갔고,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이정필 사무총장은 ‘선수트레이너와 스포츠의료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끝으로 우정치과 이우식 원장은 ‘스포츠치의학과 스포츠산업’을 제목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마우스가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스포츠와 스포츠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자리였다. 스포츠와 의료시장을 통해 스포츠의료와 스포츠산업이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 산업적 인프라 구축과 전략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keystonlee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스포츠산업포럼 화보

안현수 “러 귀화…후회없도록 할 것”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대표선수로 출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안현수(26·사진)가 17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실정을 전했다.

안현수는 “처음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귀화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었다. 하지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들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운동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사실상 러시아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음을 드러냈다. 이어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향후 노력을 전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추캥’ ‘열하나회’…이 모임을 아시나요?

축구선수들 사모임 가지각색

선행모임 ‘추캥’ 득점왕 ‘황금발’ 등
태극마크·학번·나이 동기 끼리끼리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회생활 속 소모임도 같은 맥락이다. 스포츠 속에도 이런 소모임이 많다. 외부에 알려진 유명한 그룹은 물론이고 그네들만의 비밀(결국 공개 여부의 차이겠지만) 그룹들도 있다. 축구 선수들의 사조직을 조명해본다.

●자선을 위해

축구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모임은 ‘추캥’이다. 축구로 행복을 나누자는 취지인데, ‘축구로 만들어가는 행복’을 발음대로 읽다보니 이런 명칭이 붙었다. 오장은(수원)과 김재성, 신형민(이상 포항) 하대성(서울) 정혁(인천)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한 구자철(볼프스부르크)도 ‘추캥’의 멤버다.

모임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산골에 축구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일명 ‘소나무

선생님’으로 불린다. 몇몇 선수들이 시즌 종료 후 산에 들어가 쉼쉴 때는 애기는 대개 소나무 선생님으로부터 기를 받고, 침도 맞고, 마사지를 받으며 떨어진 컨디션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소나무 선생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선수들은 알음알음 회비를 모아 함양 지역의 불우한 학생들, 보육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의기투합했고, 매년 겨울이 되면 함양군에서 자선축구 경기를 연다. 설기현과 김신욱(이상 울산), 김두현(경향정) 등도 작년 12월 열린 ‘추캥’ 자선 경기에 참여했다. 당연히 외부 후원금은 전무. 철저히 선수들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이 충당돼 따스함을 더해준다. 물론 ‘추캥’ 외에도 축구계에 꽤 많은 자선 모임들이 있다.

●태극마크와…동기들과…영예와 함께

태극마크가 소중한 인연을 선물한 경우가 있다.

‘나비효과 모임’이 그렇다. 박성화 감독과 함께 2005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했던 85년생 선수들이 주축이다. 이요한, 김창수(이상 부산) 이근호(감바 오사카) 박주영(AS모나코) 서동현(강원) 등이 모임을 주도하는 회원들인데, 정성룡(수원)과 김진규(반포레

고후) 등도 빠른 85년생이지만 네덜란드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관계로 모임에 함께 한다. 이들은 1년에 한차례 정도 모인다. 박주영과 정성룡처럼 유망부인 회원도 있지만 대개가 미혼이라 부부 동반 모임은 아직 없다.

학번 모임도 여럿 있다. 이동국(전북) 김은중(제주) 등이 주축이 된 79년생 모임, 서정원(대표팀 코치) 신태용(성남 감독) 김봉수(올림픽대표팀 코치) 등이 함께 하는 88학번 모임 등이 있다.

영광스러운 이력을 앞세운 경우도 있는데, 전직 국가대표들의 모임인 ‘열하나회’와 K리그 득점왕 출신들이 함께 하는 ‘황금발’ 등이 있다.

하석주(아주대 감독)가 회장으로 있는 ‘열하나회’는 김병치(경남) 김도훈(성남 코치) 최용수(서울 감독대행) 등 왕년의 스타들이 멤버다. 신규 가입을 위해선 기존 회원들의 투표가 이뤄지는 게 흥미롭다.

‘황금발’은 2004년 발족했으며 김도훈, 신태용 이외에도 우성용(인천 2군 코치)과 유상철(대전 감독) 등이 회원이다. 황금발은 연말 시상식 때 신규 회원(당해 득점왕)에게 축하 트로피를 수여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신영록, 올스타전 유니폼 등 선물받아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재활치료를 받는 신영록(24·제주·사진)에게 갤럭시 탭 10.1과 K리그 올스타 유니폼을 선물했다. 연맹은 K리그 동료 선수와 축구팬이 남긴 영상 응원 메시지를 갤럭시 탭에 담아 16일 신영록이 재활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달했다. 또 신영록의 등번호 10번을 ‘9+1’로 새긴 K리그 올스타 유니폼을 함께 선물했다.

수원팬 이준석 씨 ‘빅버드 일기’ 출간

수원 삼성 팬인 이준석 씨가 ‘빅버드 일기·축구에 미친 어느 서포터의 이야기’를 펴냈다. 저자는 축구와 영화 등을 소재로 한 칼럼인 ‘종이와 스크린과 필드’를 인터넷에 연재하는 등 아마추어 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은 20일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 서포터스식 입구에서 출간 기념회를 연다.

靑선수권 참가 여자농구팀 내일 일본행
임달식(신한은행) 감독이 이끄는 여자농구 대표팀이 21일부터 일본 나가사키현 오무라에서 열리는 제24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19일 출국한다.

자동차가 필통? 에르고 네바는 혹한 집안? 애락지 말고 ERGO

8,9월엔 햇빛 가리개가 무료!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면 아래 번호로 보험료만 알아보세요

기간: 2011년 8월 31일까지 (매인 신협소 2008년/상무 고객에 한함)

1544-1666 ERGO | 에르고다름다이렉트*